

#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3)

##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Boullée는 1728년 건축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처음에는 미술교육을 받았으나 후에 18세기 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축가 Jean-François Blondel과 Legeay(르제)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저지당한 회화수업에 언제나 회한을 품고 있었는 듯 하다. 스승 Blondel로부터는 최종적으로 합성된 고전주의를 전수받은 반면 Legeay로부터는 새로운 미학, 즉 로마에 있던 Académie de France의 재원자들(在院者: Pensionnaires)과 Piranesi나 Quatremère de Quincy(까트르메르 드 켄시)와 같은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기념물을 찬양하던 새로운 취향에 의하여 형성된 Monumentalism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Legeay는 화가수업을 받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의 제자들에게 Project를 제작할 때 부조의 효과 및 음영과 양귀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하도록 강요하였다. 거대주의를 꿈꾸는 그의 정신은 1765년 발행된 Peyre(1730~1788)의 Livre D'Architecture(건축서)에 수록된 정신에 비교할 만하다. Peyre는 '프랑스적인 건축을 위한 투쟁에 사용될 그리스와 로마건축으로의 회귀를

\* 본명 김원식

주장하기 위하여 화려한 장식을 버리도록 주장하였고 이제부터 예술가들이 모방하여야 할 것으로 고대 로마의 거대한 기념물인 욕장과 궁전을 모범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Boullée는 Rocaille 양식의 어떠한 자취조차도 반대하는 고전주의자로서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는 Saint-Roch(생 로크)교회의 건축을 완성하였으며 1762년 Hôtel de la Monnaie(오델 드 라 모네)의 계획을 제안하였고 이 때부터 Académie에 참여하였다.

Boullée는 Peyre가 <Machine Immense: 거대한 기계>라고 명명한 Palais Bourbon(부르봉 궁)의 복구 계획안에서 이미 감지할 수 있는 거대화를 감지할 수 있지만 Hôtel Alexandre(오델 알렉상드르 1763)나 Château de Chaville(샤빌 성 1764)에서 볼 수 있듯이 Jules Hardouin Mansart의 계승자이자 <Grande Manière: 거대화 수법>의 옹호자인 Ange-Jacques Gabriel(앙쥬 - 작꼬 가브리엘)의 기풍 하에서 거대화의 계획을 위하여 작업하였다. Hôtel de Monville(오델 드 몽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파괴되어 사라진 Hôtel de Brunoy(오델 드 브뤼누아)에서는 전형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Boullée는 개인의 건축을 위하여 규정된 모든 Convenance의 규칙들에 반하여 파사드에 Péristyle를 채용하여 Hôtel de Brunoy를 Temple de Flore(땡뵈 드 플로르: 꽃의 사원)로 변형시켰다.

이 시기 이후 Boullée는 원형 오페라계획(1781), 공공 도서관(1783), 궁전계획(1785) 등과 같은 1780년부터 1790년 사이에 있었던 대규모 공공 건축에 전념하기 위하여 단골 손님들을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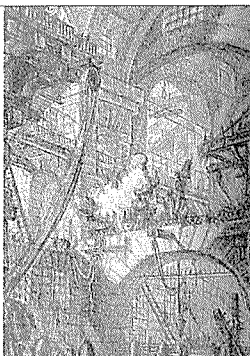
1778년 Contrôleur Général des Bâtiments des Invalides et de l'Ecole Militaire(앵발리드 및 사관학교의 건축 총감독)가 되기 이전인 1775년 그는 Trouard(트루아르)를 계승하여 2년 동안 Intendant des Bâtiments du Comte D'Artois(공뜨 다르뉘아의 건물감독)에 임명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자였으며 1791년 2월 De Wailly(드 윌리), Bronginart(브로니아르), Moreau(모로)와 같은 인물들과 함께 Académie의 개혁을 위한 계획 발의하였으나 그 억압 후 Institut가 설립되며 1795년 12월 그곳의 일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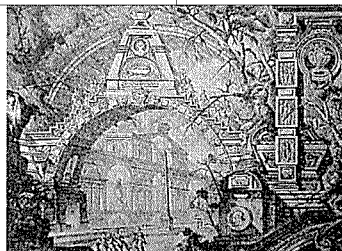
은퇴하여 집에 거하며 과거의 계획안과 자기의 예술에 관한 반성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1799년 2월 4일 자기 집 rue des Fossée-Montmartre 38번지에서 사망하였다.

일찍 시작된 교육직의 소명은 Boullée로 하여금 실제 건축작업보다도 논문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끌었다. 비록 세워진 건물은 거의 없지만 1953년에야 처음으로 출판된 그의 책 Essai sur l'Art(예술소론), 그 삽화로 씌어지도록 만들어진 100여장의 Dessin들, 그리고 Considération sur l'Importance et l'Utilité de l'Architecture(건축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관한 고찰)과 같은 저작물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의 본질을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 준다.

건축분야에 있어서 계몽주의 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흥미하였던 상대주의적 시각은 비트루비우스의 법칙을 재심판하였다. 그와 병행하여 고대에 관한 새로운 해석 및 이전에 비하여 한결 높아진 고대의 지식은 루이16세의 통치하의 건축가들로 하여금 주범에 관한 일상적 공론을 무시하고 비례의 개념을 치수의 것으로 대처하는 체계적인 연구를 더욱 더 다지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Laugier와 마찬가지로 Boullée는 건축언어의 갱신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Laugier는 la Cabane Primitive(원시 오두막)으로부터 출발한 개념보다는 제작을 위한 법칙을 마련한 반면 Boullée는 아마도 Alberti의 De re Aedificatoria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축하기 위하여 발견되어야 할 상상의 관념적 법칙이어서 개념이 제작보다 우선하는 법칙을 마련한다. Condillac으로부터의 영향 및 자연에 관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발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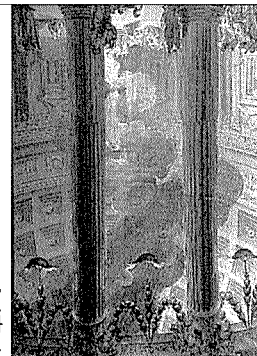


(그림1) Piranesi 감독 (1760~1765년경)



(그림2) Legeay, 건축적 환상

(그림3) Ch. De Wailly, 로마의 판테온 내부 상상도 (1756). (그림1)의 Piranesi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 힘입어 Boullée는 자연의 모방에 관한 건축 논문을 재건하였다. 왜냐하면 자연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아이디어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Boullée는 회화적 미학과 건축적 미학이 긴밀히 연결된, 그가 친히 명명한 <Théorie des Corps 신체이론>이라는 것에서 형태의 분류를 제외한다. 즉 '건축에 있어서 Image들을 산출케하는 기술은 신체의 인상(Effets des Corps)으로부터 유래하며 그것이 바로 Poésie를 구성하는 것이다. 육중한 신체로부터 가벼운 신체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 위에 일으켜지는 양극들의 효과이다. 그리고 예술가로 하여금 적합한 Caractère를 그 작품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신체의 연구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적용에 의해서이다. (Considération sur l'Importance et l'Utilité de l'Architecture). 자연의 효과들을 건축에 부여하기 위하여 건축은 상징적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효과들이 지닌 우리의 신체와의 유사성에 의하여 신체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고유성(Propriété)은 우리의 감각을 움직일 힘이 있기 때문이다. '신체의 효과가 그 양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건축가는 양극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추구하여야 한다. Boullée에게 있어서 빛은 건축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장려한 인상은 양극이 투영하는 그림자의 연출에 의해서만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 Caractère

1933년 Emil Kauffmann은 Von Ledoux zu Le Corbusier(Ledoux로부터 Le Corbusier까지)라는 저서를 통하여 - 비록 그 내용 가운데 Le Corbusier 및 그 주변에 대한 언급은 제목 외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 당시 모더니즘에 있어서 Le Corbusier에 의하여 시작된 새로운 건축운동의 근원은 Ledoux로부터 시작된다고 제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전통이 적어도 Le Corbusier 이후 Louis Kahn에까지 이어지며 그 내용은 현대 건축의 논쟁 거리가 되는 사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안다. 이것에 의하면 건축의 형태는 자발적인 것이며 본질적으로 내재적인 뜻이 있어 의미심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Kaufmann은 Three Revolutionary Architects, Boullée, Ledoux, and Lequeu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저서를 통하여 계몽주의 건축으로부터 모던 건축의 이론적 기원을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Boullée와 Ledoux는 고대의 양식적 모방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건축가와 관련된 인물상, 기능, 직업관 등의 견지에서 볼 때 급진적인 혁명을 이룬 신고전주의 건축의 탁월한 창건자들이다. 제목에서 언급된 소위 '혁명적 건축'

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18세기부터 진행된 그 형성과정에 대하여 정통해야 하는데 건축사가 Kruft는 제목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의 소지와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 역사적 현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그것을 단이(單離)된 하나의 움직임으로 파악하게 하였고 그 결과 '혁명적 건축'은 과거로부터 단절된 것이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가까운 모던 건축의 출처로서 잘못 해석하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이다. Kruft의 지적에 의하면 Kaufmann의 책 속에서 '혁명주의적 건축(Revolutionary Architecture)'이란 명칭으로써 다루어지고 있는 건축사상들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Révolution)과 관련된 표현이 아닐 뿐더러 그 운동의 혁명당원들(Révolutionnaires)에 의하여 전개된 것도 아닌 훨씬 더 오래 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혁명<sup>1)</sup>의 과정을 다루도록 빌미를 제공하였다.<sup>2)</sup> 사실상 이 건축적 움직임, 이러한 사상은 혁명가들의 것이 아니라 혁명후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왕정주의자들의 작품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건축사적 맥락에서 볼 때 '혁명적' 요소들을 정치의 대변동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 생각들은 엄정한 정확성과 이성으로써 극단적으로 정련되고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후에 혁명적 건축가들이 그것에 따라 건설했으며 어느 정도 그들에게 전수되고 한결 더 과장하게 된 18세기에 연연히 흐르고 있었던 이론적 논의의 다양한 흐름들에 정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암시하였듯이 Boullée는 소수의 건물과 개인 주택의 인테리어만을 남겼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디슈의 건축 행정직과 1급 간부로서 Académie D'Architecture에 입회함은 그를 1781년 건축업무로부터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을 마련케 하였으며 전혀 있음 직하지 않으며 공식적이어서 실행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순수 계획안들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Boullée의 중요성은 주로 그가 저술한 Essai sur l'Art와 1781년부터 1793년 사이에 이 책과 관련하여 제작한 Design들에서 찾을 수 있다. 1793년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원고와 그림은 프랑스 정부에 증여되었다. 그의 논문은 1953년 최초로 인쇄되었는데 더 많은 일군의 그림들은 Florence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Boullée에 관한 저술들은 그 논문의 중요성과 자료의 재발견으로 인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Essai는 건축에 대한 Boullée의 생각을 잘 전

1) 이하 '프랑스 혁명'을 '혁명'으로 가술함.

2) Kruft, Hanno-Walter: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Zwemmer/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London/New York, 1994, p. 158.

달하는 그의 제구(題句)로써 시작된다: 'Ed io Anche Son Pittore' (그리고 나 역시 화가다). 이 격언은 Boullée가 그가 자기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Corregio로부터 빌어온 것으로 단순히 Boullée가 화가로서 수업을 하였음을 암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건축을 입체의 외양을 가진 일종의 그림으로서 소개하고 있는데 건축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그림이란 뜻의 'Tableaux'와 상(像)을 의미하는 'Images'를 사용하고 있다. Boullée가 제시하고 있는 건축은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의도에 계획된 것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력들로서' 대중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는 건축에 내재한 '시정(詩情)'을 내보이는 데에 특히 열중한다. 그는 시적인 Caractère를 가지고 건축을 주장하였다. 특히 공공 건물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렇다. 나는 우리의 건물들, 무엇보다도 공공 건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건물들이 우리 감각에 제시하는 Images들은 건물들에 할당된 용도와 흡사한 느낌을 우리 속에 불러 일으켜야 한다.<sup>3)</sup>

건축이 감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Boullée의 역설은 '르 까뮈 드 메지에르 (Le Camus de Mézières)'에 의하여 얼마 전(1780)에 심화된 이론과 일치한다. 18세기초엔 기능의 실행을 의미하였고 Laugier에게 있어서는 구조적 논리를 의미하는 Usage라는 술어는 Boullée에 이르러 Caractère에 매우 가까운 것이 되며 때때로 동의어가 되곤 한다. Boullée는 입체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에 미치는 효과, '그것들이 우리 신체 시스템과의 유사'를 정의할 입체(Solid Bodies)이론의 필요성을 논리상 인정한다. 사실상 그는 '입체들의 배치를 통하여 그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서술하고 있듯이 건축은 바로 입체의 회화적 힘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Boullée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체의 회화적 효과를 탐구하는 것이며 건물 그 자체는 '제2의



(그림4) Legeay, 흥에 밑에서 본 건축물과 폐허의 경지. 당시 De Wailly 및 Piranesi에 의하여 전파된 거대 건물에의 성향이 발견된다.

예술'이 되고 만다. 그가 가리키는 입체는 단지 규칙적인 기하학적 물체들을 가리키는데 그 규칙성과 대칭성 때문에 '질서의 이미지'를 전한다. 이런 점에서 Boullée는 왜 스스로 자신을 '화가'로 묘사하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Boullée는 선대 이론가 Perrault의 이론에 숨어있는 새로운 법칙들을 자기의 이론에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Régularité(규칙성), Symétrie(대칭), 그리고 Variété(다양성). 그는 이것들이 함께 모여 비례(Proportion)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Perrault와의 암시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Boullée의 비례개념은 17세기에 확립된 비례론과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나는 입체의 비례를 통하여 규칙성, 대칭성, 다양성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의 효과를 이해한다'. 따라서 비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산술적 관계가 아니라 - 그것의 미가 Perrault가 구분하였듯이 'Positive'나 'Arbitrary'에 상관없이 - 오히려 그러한 효과를 산출하는 요소들의 조합이다. Boullée가 정의한 이 조합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Régularité는 형태의미를 산출하고, Symétrie는 형태의 질서와 단결성, Variété는 우리의 시각상 다양하게 변하는 국면, 시각들을 발생시킨다. 입체의 조화 즉 비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생긴다.

Boullée에게 가장 완벽한 형태는 그가 '완전한 함의 이미지'라고 기술한 구체(球體)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완벽한 대칭과 규칙성을 가장 고도의 Variété(다양성)로 연합시킨 것으로 Platon의 미개념과도 상통한다. 건축사가 Peter Collins에 따르면 Boullée의 몇 가지 미학적 아이디어는 아마도 Lord Kames와 같은 당대의 철학가들로부터 유래하였는지 모른다. 그는 Elements of Criticism(비평의 요소 1762)에서 Lord Kames가 구체를 가장 만족스러운 형태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는 최상의 단일성에 결합된 최대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단순성(Simplicity)은 찬미되었는데 그것은 단 하나의 인상적인 일격을 마음에 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학적 사상은 후에 19세기 Beaux-Arts 미학에까지 연결이 되어 깊게 발전한다.

Boullée는 비례를 '건축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미 중의 하나', 그리고 자연을 따르는 것으로 반복하여 기술하였다. 그의 비례 개념은 Perrault의 비례와 대칭에 관한 구분을 해석하여 설명한 것으로 여기서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비례는 제외되고 현대적 개념의 대칭개념으로 곧바로 이행한다.

3) 'Oui, je le crois, nos édifices, surtout les édifices publics, devraient être, en quelque façon, des poèmes. Les images qu'ils offrent à nos sens, devraient exciter en des sentiments analoges à l'usage auquel ces édifices sont consacrés.' in Essai, p. 47f.

한마디로 Boullée에게 있어서 질서는 Symmetry로부터 유래하며 그 결과 비례는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물체와 양체 사이의 조화로운 질서라는 애매한 개념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용어의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고대로부터 Proportion은 항상 인간의 신체를 근거로 하여서 Human Scale의 아이디어를 수립하였는데 Boullée에서는 Proportion의 개념이 소멸됨과 아울러 Scale의 아이디어는 자동적으로 건축으로부터 역시 사라지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Boullée의 사상의 변천 중 다음 단계에 있어서 심오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Boullée는 Blondel 밑에서의 수업을 통해 건물기능을 표현하는 Caractère의 개념에 정통하게 되었는데 그에 더해 자신의 새로운 개념을 부가하였다. 그는 선대 건축가, 이론가와는 달리 규칙적 입체와 그것들이 인간의 감각에 미치는 효과를 Caractère로 기술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상이 되었든 이와 같은 오브제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를 Caractère라고 부른다.'<sup>4)</sup> 그러므로 그는 Caractère를 각 건물의 결정적 차이를 구성하는 건축적 용도의 표현에 연결시키기보다는 규칙적인 입체의 효과를 가리킴으로써 형식주의적 자세를 취한다. Boullée는 입체의 규칙성과 Symmetry를 자연 법칙의 진수이자 요약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의 디자인은 '자연의 위대한 그림(Grands Tableaux de la Nature)'을 창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이 활동하도록 하는 유일한 예술은 바로 건축이었다.

자신의 대사원 계획에서 Boullée는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인상적인 그림'을 추구한다. 사원의 크기는 '가장 인상적이고 훌륭한 존재물의 이미지를 제안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주의 반영이다.

## Monumentalism

Boullée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당시의 열광 및 로마의 유적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로마에 있는 프랑스 아카데미의 작업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폐허가 된 유적을 그리는 동판화가 Piranesi의 작품은 이러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때부터 거대한 크기의 웅장한 건축에로의 갈망은 엄청난 속도로 폭발하는 정치적 필요성과 연결되고 있었다. Boullée는 건축예술의 위엄을 통하여 기념주의를 과학자들의 훌륭한 건강과 도덕적 성격과도 같은 덕목으로 연결함과 아울러 어떠한 창조적 문화도 Monumentalism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그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평가에 있어

서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객관적 기준의 보편적 양식에 다다른 방법으로서 그는 과거 고대건축의 권위에 의존하였다. 거대한 무덤과 같은 건축에서는 때때로 그리스 양식을 참조하고 있지만 대체로 로마양식을 참조하는데 이는 아마도 거대화, 기념비성을 나타내기엔 적합한 양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로마의 건축에서 그는 고전주의적 건축이 지녀야 할 특징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 요소로서 신성한 디자인 법칙인 대칭성, 그리고 구심성, 내향성을 그의 건축에 도입하였고 형태언어의 측면에서 볼 때 피라미드, 육면체, 구(球)와 같은 이상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적 양체를 채택하여 위엄있고 위계적인 질서를 추구하였다. 프랑스 계몽주의시대 이후의 지성인들이 보이고 있는 극도의 질서 및 합리성으로 경도됨을 Boullée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불규칙적인 것을 경시하였고 절대적인 미학을 추구함으로써 그의 건축언어가 Platon적인 질서를 표방하게 되었다.

Boullée의 눈에는 무한공간(Immensity), 미 그리고 Symmetry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성은 필연적으로 미와 연관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의 크기는 '고도의 질(上質)'과 동일하게 생각된다. 이런 효과를 고양하기 위하여 Boullée는 그리스인이 사용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원주의 열을 채용하는데 전반적 효과를 위하여 조명의 효과적 사용을 주장한다. 주범의 채움과 같은 전통적 견해는 그의 디자인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주장하는 Caractère의 상징성에 속하게 되었다.

Boullée의 디자인들은 모두 다 그 크기나 외관에 있어서 기념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기능은 '현정된 인물의 기억을 영존 시키기 위한 것'인 무덤, 장제신전 등의 매장 기념물은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미건조한 봉우리와 부동성의 슬픈 이미지'를 하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건축의 시성'에 다르기 위하여 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디자인의 예시와 그에 관한 해설의 절정은 Newton에게 현정된 기념물에서 발견된다. 씌어진 설명은 성가의 형태를 하고 있다: '고귀한 정신이여! 거대하고 심오한 천재! 신성한 존재! Newton... 당신은 땅(지구)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발견한 것으로 당신을 포장하는 아이디어를 착상하였다...' 이 계획안에서 거대한 구체는 지구 및 Newton의 발견물을 상징한다. 이 Cenotaph(기념묘)는 낮에는 Dome에 뚫린 구멍들로 인하여 구체 내부에 밤과 같은 하늘이 재현되고 밤에는 그 내부는 거대

4) 'Et j'appelle caractère l'effet qui résulte de cet objet et cause en nous une impression quelconque.' in Boullée, E.-L.: Essai, p. 73.

한 등으로 밝혀지도록 계획되었다. 건물의 외부주위로 조성된 나무의 원들은 Augustus나 Hadrian의 로마제국의 장제신전의 전통을 재현한다. Boullée는 자신이 계획한 디자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가 보듯이 이 위대한 그림의 효과는 자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Boullée는 그의 디자인은 당시의 가용한 구조적 가능성을 지나친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유골이 없어서 빈 Objet이므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Newton의 기념물은 건물이 그 목적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하학적 아이디어는 점점 더 순수하게 발달할 것이라고 하는 Boullée의 의향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계몽주의는 Newton에게서 정신적 지표를 발견하였는데 Boullée의 Newton의 기념물은 개인으로서의 Newton에게 헌정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헌정된 것이다.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몽주의의 Newton에 대한 숭상은 1732년 Alexander Pope가 그의 묘비에 쓴 글귀가 예증한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암흑 속에 제시되었다:  
하느님이 가라사대, Newton이 있게 하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밝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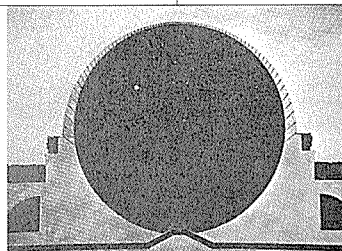
Essai에서 Boullée가 설명하는 축성과 다리는 Caractère의 학설을 광고 포스터와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의 계획안에 따르면 축성물은 정복하기 어려운 모양을 한 군인들과 외벽에 방패물을 묘사함으로 '힘의' 이미지를 꼭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종류의 건축은 Caractère, Parlante 그리고 - 위협 등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건설 가능한 것 또는 편리한 것에 한정하는 것을 경멸하였다. 그리고 구체의 형태를 한 몇 개의 건물들 Newton 기념관 또는 전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Opera House 등은 Utilitas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재료나 기술로는 건설될 수 없는 것이었다. Boullée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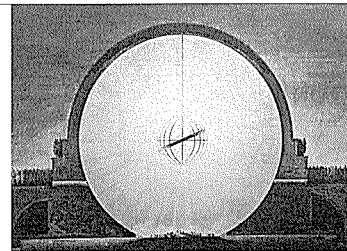
매력은 다음과 같은 그의 디자인의 방법에서 발견된다. 기하학적 형태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 실지적용의 흔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이디어의 표현, 기념비적 그리고 초인간적인 스케일의 디자인. Boullée의 디자인은 제작을 요하는 것이 아닌 묘사 그 자체로서의 건축이다. Boullée에게 있어서 기념비성은 과대망상증의 종류가 아니라 그 거대함이 건축에 표현된 자연의 장엄함의 표현이다. 계몽주의자들을 표상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인식함이 없는 Boullée에 대한 모든 언급은 형태와의 공허한 게임이 될 것이다. Boullée가 채용한 형태에 친숙하나 그 아이디어와는 정통하지 않은 20세기의 많은 건축가들은 바로 이러한 실수의 먹이가 되곤 한다. 그의 디자인들은 Tableaux(그림)에 머무르는 것이며 Boullée의 건축론은 실제와의 연결을 잃은, 유행하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연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전반적인 건축세계를 서술한다면 형식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요소가 융화되어 있는 환상적 또는 공상적인 비사실적인 관념적 착상의 단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5〉 Newton 기념묘(Cenotaph), Elevation



〈그림6〉 Newton 기념묘(Cenotaph), 단면, 낮



〈그림7〉 Newton 기념묘(Cenotaph), 단면, 밤